

호수에 비행기 앉은듯 ... 동심 뿜아올린 '김수근표' 건축



춘천시 의암호 수변에 자리잡은 KT&G 상상마당 춘천(옛 춘천시어린이회관)은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 작품으로 마치 비상을 준비하는 종이비행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박승선 기자

팔도건축기행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11> 춘천 KT&G 상상마당

현대건축의 거장 고 김수근 건축가 작품
옛 춘천시어린이회관, 복합문화공간 변신

의암호 수변에 '배산임수' 탁월한 입지
붉은 벽돌의 향연...44년전 모습 그대로



김수근이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것 같다고 말한 경사로.



중앙 필로티 공간처럼 건물 사이의 마당같은 역할, 마치 교차로의 개념을 이식해 놓은 것 같은 장소가 존재한다.

춘천시의 서쪽을 둘러싼 의암호. 그 수변을 거닐다 보면 '종이비행기'를 닮은 멋스러운 건축물 하나를 만날 수 있다. 누군가는 그 자체가 '나비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세번 고쳐봐도 나비보다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종이비행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KT&G 상상마당 춘천(이하 상상마당 춘천)'이다. 옛 이름은 춘천시어린이회관, 그 전에는 강원도어린이회관으로 불리던 장소다. 지금은 공연장과 스튜디오, 연습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지만 1980년 개관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 역할을 했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탁월한 입지

아트막한 동산(삼천동생태공원)을 등지고 의암호를 앞마당처럼 거느린 대지 위에 건물을 쌓아 올렸으니, '상상마당 춘천'은 지세(地勢)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도 감탄사를 절로 뱉을 정도의 입지다. 더군다나 의암호를 파내거나 매우지 않는 이상 근처에 딱히 건물 들어설 공간이 없고, 의암호 바로 다음 순서가 산이고 그다음도 산이기에 스카이라인이 44년전, 건물이 들어설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광이 변함없이 흐르고 또, 펼쳐짐은 물론이다.

상상마당 춘천에 다다른 길은 두가지 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쪽에서 완만한 경사의 언덕 끝을 목격지로 정하고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것과 춘천 MBC를 지나 숲길을 건너 야외공연장을 계단삼아 품에 안기는 방법이 그것이다.

설계도 상에서 전자가 중앙 출입구로 들어오는 것이고 후자는 말하자면 부출입구, 후문으로의 입장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16번 버스를 타고 상상마당입구 정거장에서 내려 강원국악예술회관을 거쳐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춘천 MBC와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사이 광장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후문'으로 통과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그 시간이 어스름 때라면 더 좋다. 숲길 마치 막 코너를 지나치는 순간 붉게 번지는 낙조를 배경으로, 조명이 달궈진 건물의 환상적인 모습과 조우할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 김수근 작품

'상상마당 춘천'의 설계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국의 로렌초'라고 극찬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맡아 진행한 것이다.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가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후원, 문화예술을 꽃피게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시 타임은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수근을 한국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지목, 현사를 보낸 것이다.

아마도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상지인 피렌체 건물이 온통 붉은색 테라코타 지붕으로 뒤덮인 모습과 김수근 건축물의 특징을 연관시키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김수근이 남긴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상상마당 춘천은 다행스럽게도(?) 쉬이 헐어내지 못하고 개관 때의 모습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스크, 붉은 벽돌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 흔적 만으로도 건축학도들은 이 건물이 김수근의 설계로 완성된 건물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 공간사육을 비롯해 마산 양덕성당과 샐터사육,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육(이상 1977), 지방행정회관(1979), 아르코예술극장(1981)으로 이어지는 건물들에서 김수근 건축의 실마리를 손쉽게 발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건물들은 적벽돌을 주요 건축재료로 활용한 것은 물론, 건물 벽면에 튀어나온 돌출벽돌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간 창(窓) 등이 특징적으로 눈길을 멈추게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상상마당 춘천' 건물의 중앙 필로티 공간처럼 건물 사이의 마당같은 역할, 마치 교차로의 개념을 이식해 놓은 것 같은 장소가 존재하는 것도 그의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상당히 이채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호숫가에 피어나는 끝없는 동심세계'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상상마당 춘천'이 리모델링 전, '강원도 어린이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된 것은 1980년 5월5일(아직 건물에 머릿돌이 남아있다) 어린이 날이었다. 물론 개관일은 5월24일 토요일이었지만 준공일을 어린이 날에 맞추고 건물명 자체에 '어린이'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기는 힘들 듯 하다.

여기에 당시 춘천과 원주시에서 열린 '제9회 전국소년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된 점 등 설계에 있어서 '어린이'를 중심 요소로 감안해야 하는 이유는 여럿 있었다. 그것은 건물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효용'에 더 큰 가치를 둔 건축철학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상마당 춘천'에는 아직도 어린이를 염두에 둔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김수근은 건물 설계를 하면서 '재미있게 만든다'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관 당시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설계를 의뢰 받았을 때 어린이와 공간이구나 좋은 테마구나 싶어 재미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집안에 숨어있다 나오면 햇빛이 옆으로 비쳐들어오다가 지붕에서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오면 탁 트여 구름다리 같은데서 호수와 산이 보이는 공간상의 해프닝을 테마로 삼았어요." 김수근은 어린이는 바로 노는 사람이라는 개념이고, 그런 어린이의 본질을 제대로 발산시킬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이 건축물의 개념을 살리려고 했다. 그래서 개관 당시 어린이회관을 표현하는 슬로건은 '호숫가에 피어나는 끝없는 동심세계'였다.

◇곳곳이 포인트...아름다운 풍경 풍성

춘천시와의 계약에 있어서 건물 보존에 대한 조건이 있었지만 어린이회관을 넘겨 받은 상상마당 측이 건물을 작품으로 인정, 지난 10년 동안 내부 리모델링 말고는 건물의 외형에 딱히 손댄 곳이 없는 점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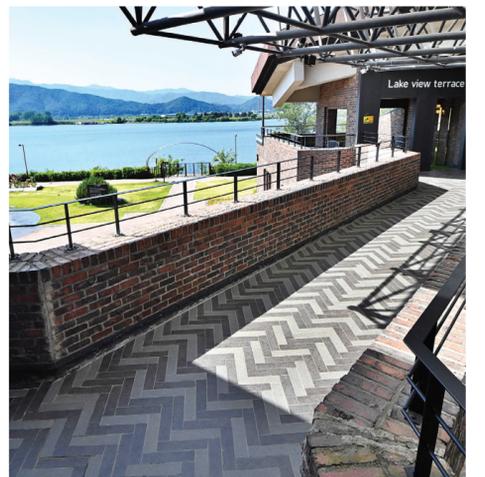
특히 전체 공간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야외공연장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 복원해 각종 야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 놓은 점도 박수쳐 주고 싶다. 그러한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는 오늘날 건축가 김수근 건축의 걸작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상상마당 춘천'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 몇군데를 추천한다.

야외공연장 관객석 중앙의 가장 높은 곳이 첫 손에 꼽고 싶은 포인트다. 건물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펼친 종이비행기 날개(건물 지붕)의 좌·우측 선이 마치 한옥의 그 것처럼 산의 능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리고 건물의 2층, A동과 B동을 잇는 '구름다리'에서는 쏟아질 듯 펼쳐지는 의암호의 풍광을 어떤 걸림도 없이 고스란히 즐길 수 있고, 중앙 필로티 공간에서는 자연스레 만들어진 사각의 틀 안에 1층의 풍경들을 작풍처럼 담을 수 있다. 그 외에 새롭게 조성된 분수는 야간 조명이 마련돼 있어 밤에 보는 풍경이 한마디로 끝내준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다. 내부로 들어오면 김수근이 말한 아이들이 뛰어놀며 숨바꼭질 할 것 같은 경사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이 또한 멋스럽다. 맑고 화창한 어느 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들은 덤으로 쟁쟁 가시갈...

/강원일보=오석기 기자 sgtoh@kwnews.co.kr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비상을 준비하는 종이비행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A동과 B동을 잇는 구름다리는 앞으로 펼쳐진 의암호와 산세를 어떠한 걸림도 없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리모델링 거쳐 '상상마당 춘천' 개관 10년
야외 공연장, 문화행사 '핫 플레이스'로

구름다리, 쏟아질 듯 펼쳐지는 호수 감상
야간 조명 분수, 남녀노소 최애 장소 정평